

「국제衛星방송」추진 공보처에 발표

정부가 위성방송시대를 맞아 국내방송의 해외송출 및 국제방송채널의 개설 추진에 나섰다.

먼저 공보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은 위성방송 「아시아 채널」의 개설이다.

이미 뉴질랜드·홍콩·싱가포르를 「아시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합동을 개설,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경제·문화등 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게 공보처의 판단이다.

특히 일본(日本)과 중국(中國)이 아시아 합동채널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어 더이상 어물거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들 나라에 주도권을 뺏길 경우 운영상 불리한 대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4개국어만 사용가능한 음성장치 선택에서 자칫 한국어(韓國語) 채택이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성방송 「코리아 채널」의 개설은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작업이다.

일본은 이미 5월 「일본채널」을 통해 국내방송을 전세계로 쏘게

되며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유럽권·아시아권의 외국 위성을 임차, 우리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전세계에 방영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까지 12개 발사 인마셋-P사업 본격 출발

국제 위성 이동 통신 기구(INMARSAT)의 주요 회원들은 25억 달러가 소요되는 전세계 이동통신 위성시스템 사업인 인마셋-P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인마셋은 2000년까지 12개의 위성을 지구 중궤도에 올리는 본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곧 조합을 창설하여 전담회사 '인마셋-P 어플리케이션'을 설립할 예정이다.

모토로라(이리디움), 스페이스 시스템스 로탈(글로벌스타), TRW/퀄컴(오디세이) 등 미국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저궤도 및 중궤도용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 모빌커뮤니케이션(엘립소), 컨스텔레이션 커뮤니케이션(컨스텔레이션)등 회사도 미연방통신 위원회에 위성의 운용을 신청했으나, 다른 세 회사들 만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아메리칸 모빌 새털라이트(AMSC)도 미연방통신위원회에 위성운용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AMSC는 캐나다의 TMI(과거의 Telesat Mobile)사와 함께 북아메리카 전체를 커버하는 이동전화시스템인 M-SAT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인마셋은 마틴마리에타 아스트로 스페이스와 마르타 말코니 스페이스(MMS)사에서 제작중인 인마셋 3 위성군의 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마셋 3 위성군의 최후위성은 1994년 11월에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1995년 말이나 1996년 초까지 연기되었다.

MMS사는 우주선에 장착될 고감도 고체 증폭기(Highly Sensitive Solid-State Power Amplifiers)와 L-밴드 Spot Beam의 개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프로젝트 21」 참여 한국통신등, 합의서에 서명

한편 한국통신·삼성전자·신세기통신이 컨소시엄을 구성, 국제이동위성통신기구(인마셋)가

추진중인 범세계 위성휴대통신사업인 '프로젝트 21'에 참여키로 하고 12월 26일 합작투자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통신에 따르면 이 컨소시엄은 오는 '97년까지 '프로젝트-21'의 1차 조달자본 10억달러 중 10%인 1억달러를 투자하게 되며 이중 한국통신이 60%, 삼성전자와 신세기통신이 각각 20%씩을 분담한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 컨소시엄은 이미 12월 16일 투자의향서를 인마셋본부에 제출했고 '95년 1월까지 의향서 표시금액의 10%인 1천만달러를 출자할 예정이다.

미-러 우주의료연구 협동체제 구축

앞으로 석달간 세부계획 협의

항공기술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장차 러시아의 우주의료연구 성과들을 미국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키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미항공우주국(NASA)의 한 관리가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94년 12월 알고어 부통령과 빅토르 체르노미

르딘 러시아 수상 사이에 있었던 모스크바 회담에서 처음 공식화 된 것인데, 아놀드 니코고시안 NASA의료연구실장에 따르면 양국은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동 계획 추진과 관련한 세부협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양국이 합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측에 장비와 자금을 합해 총 50만달러를 지원, 러시아로 하여금(우주 바이오메디컬 훈련연구센터)를 설립케 하고 동 센터를 모스크바국립대학과 러시아 바이오메디컬문제연구소 그리고 NASA 및 기타 미국 연구기관들과 연계시킨다는 것이 기본 계획으로 잡혀 있다. 러시아도 동 센터에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할 전망이다.

미국은 모스크바에 설립될 동 센터에 상응하는 연구소를 휴스턴의 존슨우주센터에 설치, 미국 내 각 대학과 각급 연구기관들에 협력활동을 의뢰할 방침이다.

NASA와 러시아우주국은 이와 별도로 유럽, 일본, 캐나다와 공동으로 의료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새 우주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며 당장 내년에는 양국 합작으로 유인우주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비절감에 적극 대처 보잉-MD, 차세대 우주선 공동개발

미국의 양대 항공 산업체인 보잉사와 맥도널 더글러스(MD)사는 11월 29일 기존의 우주 왕복선 모델을 대체, 재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우주왕복선을 개발하는 등 공동우주탐사의 새 시대를 열기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 공동사업계획의 책임자인 윌리엄 거베츠씨는 'MD사와 보잉사는 미국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힘을 합쳤다'면서 '공동 사업계획은 우선 경비를 줄이면서 우주에 손쉽게 진출하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美최대의 군수산업체인 MD사와 최대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보잉사는 양사가 함께 정부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는 이같은 노력이 우주의 상업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같은 사업을 놓고 경쟁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美항공우주국(NASA)이 발주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